

2019년 10월 17일, 서귀포시 대천동(강정동) 강정마을경로당, 문순덕 · 김은정 조사.
고정열(1937년생, 서귀포시 강정동)

- 서귀포시 호근동 출생으로 20세부터 현재까지 63년째 강정동에서 살고 있다.

- 줄거리: 아들만 일곱 형제인 남선비가 가난하여 육지로 곡식을 얻으러 갔다. 기다려도 남선비가 돌아오지 않자, 부인은 남선비를 찾으러 갔으나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모습으로 보고 남선비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노일제귀일이딸까지 데리고 온다. 집으로 오는 길에 작은부인이 목욕을 하고 자고 유인하여 큰부인을 죽이고 큰부인 행세를 하며 집으로 돌아온다. 일곱 형제는 어머니 행세를 하는 것도 모르고 따르지만 막내 아들은 어머니가 아님을 직감한다. 작은부인은 아픈 척하고 점쟁이가 일러준 대로 일곱 형제의 간을 내어서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남선비에게 말한다. 그러나 막내아들의 지혜로 아들들은 살아나고 노일제귀일이딸은 변소에 가서 변소신이 되고 일곱 형제는 칠성별이 되었다.

[제보자] 아들만 일곱 성제 난디 삶이 옛날에 막 어려우난 살단 살단 버치난 남선비가 육지에 곡석^{후례} 간 거라. 거디 강 오꽃 각시 얻엉 산 거라. 게난 각시는 수못 기다리당 기다리당 버천 아들신디 짚신 한 베씩 삼아도伦. 초신 일곱 개 삼양 주난 하르방 나간 디에 남선비 촛양 매날 매날 기다련 허난 아들들이

“어머니, 경 기다리지 말양 우리 배 태우거던 아버지 강 촛양 옵서.”

경^후伦.

경^후난 아방 촛으로 가난 옛날에 지장밧이 생이 들리는 소리가

“조, 요놈으 조 요근 간에도 거세기 아기 그물에도 남선비 요근 간에도 노일제귀일이딸이영 살았저.”

경^후난 그 할망 배에서 누련.

“아기야, 아기야, 너 굿사 무신 노래 골안다?”

“나 무신거伦 골을디가? 지장밧에 요 생이야, 아기 그물에도 들은덴 헤라. 남선비도 노일제귀일이딸흔티 속았저 골았우다.”

“그 남선비 어디 살암디? 골아도라. 골아도라.”

옛날에는 샷길이 잊어. 샷길로 가넨 빙 돌양 강 보난 하르방은

“오....오....”

허멍 죽어가는 하르방 잇이난

“하르방, 나 집 좀 빌려줄서, 쉬엇당 가쿠다. 먼질 걷젠 하난 다리 아파그네
나 쉬엇당 가쿠다.”

“아휴, 우리 집은 놈신디 빌릴 나우 엇우다. 누우믄 오줌내, 사민 똥내, 경 나
는 집이난 집 안 빌리쿠다.”

“게믄 똥내 나는 데 빌리지 말양 마당이나 빌립서.”

“게믄 경합서.”

“예, 솟이나 훈저 빌립서, 나 정심이나 먹엉 가젠”

흐난

“이이고, 솟은 밥행 먹은 나위 엇우다마는 정제에 강 봅서.”

정제에 강 보난 솟이 체밥만 혜영 먹어나난 밥후곡 말 나우가 엇이난 앞밭이
강 삼소세재 흐곡 뒷밭에 강 삼소제 헹그네 곤밥행 앉양 체밥만 헹 먹어나난

“베렝이밥 난 안 먹크라, 안 먹크라.”

체밥만 먹어나난 곤밥보고 베렝이밥이렌 흐난 각시가 울멍

“아이고, 이 어른아 상도 받아난 상 아니냐? 숯가락도 받아난 숯가락 아니냐?”

경흐멍

“아이고, 큰처 왓구나.”

헹 밥 먹젠흐난

조로로 노일제귀일이딸 왕

“아이고, 요 늙은이 어디 주인 빌리고 나그네 빌리고 할 디라?”

“아이고, 주인 나그네가 아니라 큰상처 왓어.”

“아이고, 성님이꽈? 성님이꽈?”

하르방 옷 혜주고 등떼기 밀멍 몬 몸곰젼 반칙하게 옷 입형 남편은 하도 고우
나넨 돌양 와가난

“아이고, 성님 나도 가크라. 가크라.”

하난

“강 살아지크냐? 게믄 글라.”

같이 가당 물 막 나오는디 가난 남선비영. 큰각시 막 머리흐영 막 곱게 흐영

출령 오는디 그 통에 가는 물이 깨끗허영 성님고라
“성님, 여기왕 몸곰읍서 몸곰읍서.”
아시부터 등데기 밀어주肯 하난
“아이고, 어디 아시부터 흡니까? 성님부터 몸곰읍서.”
등데기 밀어네쿠덴 미는 척하당 와락 통데레 밀어부난 큰각시는 죽엇주게. 그
제사 남선비는 돌아뎅기난 왕 보난 旱난 엇주게. 하난 어디 갓이넨 하난 족은 건
큰각시인추룩旱명 족은각시가 죽엇덴 골았주. 남선비도 경행 보믄 뱅신이라.

[조사자] 경행마슴?

[제보자] 족은각시가 큰각시 죽여 둉 이녁은 큰각시노렌 하난 족은각시가 큰각시 행세해
그네 돌아오는디 정낭 앞이 일곱 성제 과짝하게 서 잇언.

“어머니 수고햇우다. 수고햇우다.”

옛날에도 족은아들이 젤 요망저. 그 위에 아들은 호끔식 호끔식 병신. 살아가
난 노일제귀일이딸이 뱅 들엉 죽어가노렌 旱명 아들 상 아방 주고 아방 상 아들
주고 거꾸로 놔가난 이 아들이

“무사 영 거꾸로 낮수과?”

“나 한강물 탕 와난 셈 섞어정 그거여.”

일곱 성제가 몬딱 이녁 어멍인 줄 알았주게. 겐디 매날 아팡 옴짝은 안헤가난
아무데를 강 구덕 쓴 점쟁이가 이신디 점 지엉 오렌. 요세 넘엉 더 새 넘엉 강
보난 점쟁이가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어사 좋주.”

旱난

“뭐렌 골읍디가? 뭐렌 골읍디가?”

하르방은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으렌 헸어.”

“아이고, 어떻 그거 나 살젠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습니까? 다른 디가 물어봅서.”

다른 디 강도 다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으렌.

“키움 어렵주마는 어떻旱여.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어사주.”

旱난

이젠 족은아들이 어디강 들어오너렌 하난 아방이 칼을 소앙소앙 골없이난

“아버지, 그거 뭐힘이과?”

“어머니 아파부난 너네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으면 낫인덴 했저.”

“예, 잘했우다. 우리 보단 어머니 구환해야 ㅎ난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읍서. 근디 저 그거 헤영 일곱 성제에 내여나믄 이거 어떻 치우쿠과? 그 칼 주믄 잡아그네 애만 헤영 오믄 먹어봥 좋으믄 나 ㅎ나만 처리ㅎ믄 줍니다.”

게난 나 아들 착하다. 칼을 족은아들 주난 일곱 성제가 그걸 들언 매 울멍 올레에 돌아가난 어떤 백발 노인 만나난 너네 무사영 울없이넨 하난

“아이고 우리집이 어머니가 중벵 들엉 우리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어산덴 하난 우리 이추룩 울멍 돌았우다.”

“저기 산에 가믄 산톳 고사 봐 쳐라. 그거 애 내영 가져가 보라.”

이젠 경 ㅎ난 올레에 성들은 곱져두고 막내가 애를 정 간 성님에 여섯 성제 모두 애 내엿이난 어멍 먹는 거 보젠 ㅎ난

“아이고, 저례 나가라. 중병든디 약 먹는디 안 본다.”

창으로 보난 어멍이 먹는추룩 하당 초석더레 곱지는 거 보난 족은아들이

“어머니 어떻 허우꽈?”

ㅎ난

“몬 먹엇저. 막 좋다. 혼 마리 더 먹으민 나 막 살아지켜.”

“네. 혼 마리 더. 성님들 혼저 살아잇이믄 다 나옵서.”

ㅎ난 여섯 성제가 확 나오난 아버지는 정담에 거디 걸러정 죽고, 아들 여섯 성제가 확 나오난 어멍도 그거 보당 나 똥 모렵다 똥 모렵다 하당 옛날 둋통에 가난 오꽃 죽어불지 않으냐.

게난 다리는 똥 싸는 디딜팡 멘들고, 머리는 끊어그네 도새기 주는 둋도고리 멘들고, 등떼기는 도새기 사는 집 멘들고.

경 ㅎ난 굿하젠 하믄 노일제귀일이딸 거느리는 거라. 둋통 건드리면 동티나이. 그 하르방 위행 올레굿 혔다. 아들은 칠성벨로 얻어먹으멍 살고.

- 핵심어: 남선비, 노일제귀일이딸, 일곱 성제(일곱 형제), 애(간), 성님(형님), 백발노인, 산톳(산돼지), 올레, 어멍(어머니), 칠성벨(칠성별), 하르방(할아버지)